

제 3편 한성도읍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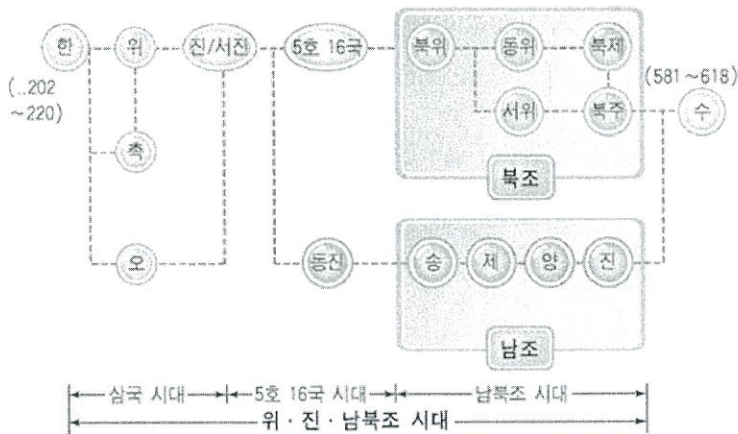
백제왕

- 비류왕. 304-344
- 계왕. 344-346
- 근초고왕. 346-375
- 근구수왕. 375-384
- 침류왕. 384-385
- 진사왕. 385-392
- 아신왕. 392-405
- 전지왕. 405-420
- 구이신왕. 420-427
- 비유왕. 427-455
- 개로왕. 455-475.

고구려왕

- 미천왕. 300-331
- 고국원왕. 331-371
- 소수림왕. 371-384
- 고국원왕. 384-391
- 광개토왕. 391-412
- 장수왕. 412-491

중국 왕조



《삼국지》의 배경. 위·촉·오 삼국 시대

1장 고구려, 신라, 가야제국과의 교섭과 교류

(1) <일본서기> 신공기 49년조의 주요 논점으로 봤을 때,

- 왜가 신라를 치고 가야 7국을 평정하고 심미다례까지 평정한 것으로 풀이
- 논쟁 1. 군사 활동의 주체 - 백제로 보는 견해가 타당. 남방경략.
- 2. 군사작전의 시기. 369년 근초고왕.
- 3. 군사작전의 대상. 신라. 가야. 심미다례(영산강)
- 4. 백제의 대왜(大倭) 교통로 확보

신라와의 우호 관계 수립 : 양국화호(兩國和好) 약위형제(約爲兄弟). 369년 신라에 대한 선제 공격 이후, 교빙. 고구려-신라 연결을 방지.

백제는 3세기 중반까지 마한의 일원. 신라는 친한의 일원. 300년 전후, 백제, 신라 명

칭사용.

가야제국과의 우호관계 : 후결친호(厚結親好) 이위자제(以爲子弟). 가야의 성장. 신라와의 연결 방지. 비자발, 남가라, 탁국, 안라, 다라, 탁순, 가라 7국에 대한 평정. 친호관계를 맺고 정치적 독립을 인정, 군사동맹 체결.

(2) 고구려의 남진과 백제의 북진 정책의 대결

- 백제의 평양성 공격과 고국원왕의 전사 : 369년경 남방지역에 대한 군사작전성공, 영산강유역의 물적기반확대, 고구려와의 치양성전투에서의 대승 등
- 고구려 고국원왕의 뒤를 이은 소수림왕의 백제에 대한 반격 등,
- 고국원왕 이후 소수림왕. 불교 수용. 태학. 율령.
- 백제와 고구려 사이의 전개된 전투는 일진일퇴의 공방양상.
- 광개토왕 즉위 이후, 391년 백제 공격. 관미상 함락. 백제는 395년 대패.

(3) 백제, 가야, 왜 연합 대 고구려, 신라 연합세력의 대결

고구려-신라 연합세력의 배경

1. 신라와 백제와의 갈등국면 - 백제의 성장과 신라의 내정 완비. 373년 백제 독산성주의 신라망명사건
2. 가야지역의 둘러싼 대립 - 백제와 가야제국의 공납관계, 군사적 요충지를 둘러싼 신라와의 경쟁.
3. 신라의 친고구려 정책. 392년 경 치고구려 정책으로.

백제-왜의 연합세력의 배경

1. 한반도의 세력불균형 해소. 신라-고구려 연합에 대결.

백제, 가야, 왜 연합 대 고구려, 신라 연합의 대결과 영향

광개토왕의 신라 지원. 보/기병 5만으로 신라 침투 왜를 격파.

399년에서 400년에 걸친 전투는 중국 대륙을 제외한 만주-한반도-일본열도에 성립한 국가들 모두가 관련된 국제전쟁이며, 각국의 큰 정치적 변화를 엿볼 수 있다.(백제의 대고구려 대항 정책 약화, 지배세력의 변화, 고구려는 명실공히 강자로. 고구려와 신라와의 관계재편 등)

(4) 고구려의 남진 재개와 제라동맹의 결성

백제와 고구려 사이의 소강상태 - 백제의 왕위계승문제, 고구려의 평양천도
고구려의 남진 재개와 제라동맹의 결성

배경 - 427년 고구려 장수왕의 강력한 전제왕권의 수립
- 고구려의 신라 왕위계승에 대한 관여, 내정 간섭.

백제 비유왕은 433년 사신을 신라에 보내 화친 요청
433년에 제라동맹이 맺어진 이후 백제와 고구려 사이의 충돌. 고구려의 백제 공략.
442-462년.

(5) 고구려의 한성 함락과 제라동맹의 작동

개로왕의 대(對)고구려 포위망 형성과 북위에의 접근

- 비유왕 사망, 개로왕 즉위년 455년 고구려는 백제를 공격
- 개로왕은 기존 제라동맹을 더 강화하고, 가야제국과의 우호관계도 다짐
- 461년에는 왜와의 우호관계, 471년 남조의 송과의 우호관계
- 북위를 둘러싼 고구려, 백제의 경쟁.

고구려의 한성함락과 개로왕의 죽음. 475년. 이후 백제 멸망 자제. 신라, 왜, 북위의 동향 및 백제의 잠재력을 고려.

신라의 백제 구원(1만군 파견, 그러나 한성은 이미 함락), 고구려군의 추격중단
고구려, 신라, 가야와의 문물교류. 광개토왕 시 백제는 고구려에 조공. 고구려 회사.
이외에는 대체로 농기구, 무기 등의 교류 정도.

2장. 중국 여러 왕조와의 교섭과 교류

(1). 진, 송과의 교섭

3세기말까지 마한의 이름으로 진과 교섭. 동진과 372년 최초로 교섭 시작. 근초고왕 때. 371년 평양성 전투에서 고국원왕을 전사시키는 승리 이후, 영낙랑태수 칭호. 낙랑 지역 차지했다는 것을 인정 받음. 이후 근구수왕 379년 동진 사신 파견.

이후 진사왕, 전지왕 등 동진 사신 파견.

송무제 건국 후 363년, 정동장군 고구려왕 장수왕 정동대장군, 진동장군 백제왕 전제왕을 진동대장군으로 진호. 424년 백제는 송에 조공. 439년 비유왕 송에 사절. 547년 개로왕 송에 사신, 작호제수 요청. 대체로 목적은 송이 고구려로 기울어 않게 하는 전략적 목적.

(2) 전진, 북위, 물길과의 관계

5호 16국과의 교섭 자료는 없음. 그러나 고구려, 신라는 전진과 교섭. 백제도 가능성

큼. 백제왕호부의 그림과 명문. 전진의 부견(359-385)이 백제왕에게 호부를 수여했을 가능성. 379년으로 추정. 전진과 신라의 최초의 교섭은 377년으로 볼 수 있음. 이후 382년에 신라의 전진 사신 파견에 백제가 관여했을 가능성. 근초고왕은 전진에도 사신을 보내 다면외교를 했을 것으로 추정.

북위와의 교섭 기사는 472년 개로왕이 북위에 사신 파견. 북위는 386년 건국, 535년 멸망. 472년 전에도 백제, 북위의 교류 흔적이 발견됨. 비유왕은 440년 송에 사신을 파견하여 고구려를 견제하려고 함. 이때 북위에도 사신을 보냈을 가능성. 이때를 전후 백제, 고구려 간의 긴장관계. 장수왕의 남진 정책 시, 신라, 왜와 협력하면서 북위의 도움을 이끌어내고자 노력했을 가능성. 이는 고구려를 자극하는 결과.

개로왕의 대북위교섭. 1차는 471년. 고구려를 공격해달라는 백제의 요구. 북위는 거절. 2차는 472년. 고구려의 백제 침략, 북위 사신 살해 등의 이유로 고구려 공격을 요구. 북위는 고구려가 북위에게 허물이 없고, 고구려의 설명이 예에 적합하고, 향후에 다시 고려하겠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백제의 요청을 거부.

결국 백제는 북위와의 외교관계를 단절. 북위는 고구려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

물길은 고구려 북쪽. 옛 속신국. 7부의 부가 존재. 물길-고구려 간의 갈등 관계 지속. 물길이 백제와 공모, 고구려 공격 계획 수립. 477-499년. 471-475년 사이 물길이 북위에 사신을 보내 고구려 공격을 요구. 백제의 북위 사신 파견과 일치. 그러나 북위가 거부.

문물 교류. 진, 송으로부터 백제는 왕, 우호제 등 정치제도의 도입. 조공, 책봉 관계 속에서 장군호를 받음. 동진왕조로부터 불교 수용. 384년. 역림, 식점 등 점치는 도구, 신무기, 요노 등 송으로부터 무기 수입(450년, 돈독한 관계를 보여줌.) 역법, 도량형 수입. 남조로부터 도자기 수입. 북위로부터 금동불좌상, 와당 등 수입.

(3) 왜와의 교섭

왜는 중국 한 대부터 중국과 교섭. 그러나 413년에 이르기까지 150년간 중국과의 관계 단절. 4세기 백제, 왜의 교섭 움직임. 364년 백제의 3인이 왜를 방문. 근초고왕때.

421년 송 건국 이후 왜는 사신을 보내 공헌. 백제보다 한 단계 낮은 지위로 추정. 왜 왕 무는 일본 내 정복활동을 활발하게 펼침. 문제가 되는 도평해복은 한반도가 아닌 규슈로 보아야 한다는 설명.

왜와의 문물 교류. 왕인을 파견 유학 전파, 철 단야 기술 전파, 직조, 염색 기술, 매 훈련 기술, 토기 전파 등.